

# 창업자의 창업성향이 경영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

박태정 (경상국립대학교 창업대학원 석사, 주저자 gisoopa@gmail.com)

박상혁 (경상국립대학교 창업대학원 교수, 교신저자 spark@gnu.ac.kr)

오승희 (한양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겸임교수, 공동저자 umilove@hanyang.ac.kr)

## … Abstract …

Although the probability of success is low, the number of founders is increasing as the unemployment rate increases and the employment rate decreases, such as a society that encourages start-ups and an uncertain economic situation, the economic situation in Korea that is entering a low-growth phase, and the full-fledged industrial restructuring. This study classified the orientation of the founder's inclination in what way and in what direction to lead the start-up company into market orientation and technology orient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tudy how founders' entrepreneurial tendencies affect business performance through innovation activities.

**Key Words** : Founder orientation, Market orientation, Technical orientation, Innovation activity

## I. 서론

성공가능성이 낮음에도 창업을 장려하는 사회와 불투명한 경제상황, 저성장국면에 접어든 우리 경제상황, 산업 구조조정 본격화 등 실업률은 증가하고 취업률은 낮아짐에 따라 창업자들의 숫자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정부 및 관계기관에서는 창업의 긍정적 효과를 내세우며, 다양한 창업 지원사업을 제공하고 있으나 창업 지원 기회의 있어도 아이디어와 기술만으로는 불확실하고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는 창업자의 성향이 어떠한 방법과 방향으로 계획되어 창업 기업을 이끌어 나가는지에 대한 지향성을 시장지향성과 기술지향성으로 분류하고, 창업자의 창업성향이 혁신활동을 통해 경영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연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더불어 창업자의 업종, 산업경쟁요인분석, 제품수명주기, 창업혁신활동, 혁신활동 유형에 따라 창업성향이 경영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 II. 선행 연구

## 1. 시장지향성과 경영성과

시장지향성은 고객의 수요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적 마케팅 및 방향을 지향하는 것을 의미한다. Jaworski & Kohli(1993)는 미국의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경영자, 기업 조직 시스템, 기업의 부서간 역동적 활동, 교류 등이 시장지향성의 선행 요인이며, 시장지향성은 기술의 격변성, 경쟁강도 등 시장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사업성과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Slater & Narver(1994)는 시장지향성이 자산 수익률, 판매 성장률, 신제품의 주요 성공 요소로 작용함으로써 기업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건임을 주장하였다. 또한 Baker & Sinkula(1999)의 연구에서 시장지향성은 기업의 상대적인 시장 점유율의 변화율, 그리고 기업의 전반적인 성과에 모두 긍정적 관계에 있고 조직의 높은 학습지향성은 상대적 시장 점유율의 변화율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입증하였으나, 조절변수로서 내부 조직의 학습지향성이 기업 내 전반적인 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그 효과는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다.

국내 연구 결과로는 시장지향성의 구성 요소 중에서 경쟁지향성은 기업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있으며, 고객지향성은 기업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시장지향성의 하위요인 중 각각이 미치는 영향은 다르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박재환, 김재호, 윤인철, 2011).

선행연구에서 시장지향성이 기업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로써 상반된 연구 결과가 입증되었지만 시장지향성이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의 결과가 더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 2. 기술지향성과 경영성과

기술 지향성은 기술을 시장 보다 우선시 한다는 내용으로써 기술과 경영 성과 간의 상호 영향 관계에서는 기술의 과정과 결과 측면에서 구분되고 있으며, 방향의 차이는 있으나 기업의 기술이 경영 성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Freel, 2000). 기술의 과정 측면에서는 기업이 기술 과정에서 내부적으로는 혁신을 위한 핵심 역량을 축적하는 동시에 외부의 기술력을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 경영성과를 높인다고 설명한다. 기술의 결과 측면에서는 기업은 성능, 품질 원가 부분에서 기존의 제품보다 우월한 위치에서 시장에 진입하여 경쟁자보다 경쟁우위를 초기에 확보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지향 기업보다 경영성과가 높다는 것을 설명한다(Cohen & Levinthal, 1990).

기술지향성과 성과에 관한 연구에서 기술지향성은 기술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고, 이를 매개로 한 고객의 재무성과에 긍정적인 관계를 보였으며, 시장지향성은 기술 성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고객 재무 성과에는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강도규, 박성용, 2007). 기술지향성은 대체로 기술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과와의 관계는 재무적 성과에서 매개변수의 구성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결과와 미치지 않은 결과로 나타났다(조남재 외, 2007).

선행 연구 내용을 종합해보면 시장지향성과 기술지향성이 기업 성과와의 관계에서는 대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긍정적인 결과가 많이 도출되었다. 그리고 이에 상호작용효과를 투입한 변수의 구성에 따라 관련성과는 또 다르게 나올 수 있으며 시장지향성, 기술지향성의 매개 변수를 통하여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창업자의 성향이 시장지향성·기술지향성 일 때 매개변수에 따라 기업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 3. 창업가의 혁신활동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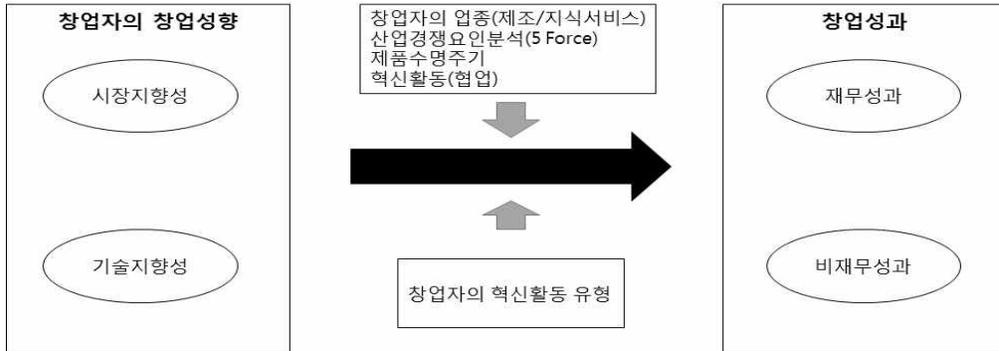
혁신활동은 혁신의 실천, 행동을 위하여 이행되는 과학적, 기술적, 조직적, 재무적, 상업적 등 과정들을 총칭하는 개념이다(OECD, 2005). 혁신활동은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나타날 수 있지만 시장의 요구를 충족하거나 마케팅, 기업의 관리,

조직의 부분 등 기능적인 부문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Lawrence and Lorsch, 1967; Song et al., 1997). 혁신활동과 혁신 성과와의 관계에 대해서 실증 분석이 폭넓게 시도 되어있고 주로 긍정적인 영향이 확인되었다. 내부, 외부 각각 혁신 활동을 구분하여 조직의 혁신 역량과 지식을 서로 어울리도록 마련하고 협력적 혁신 네트워크를 활용을 바탕으로 지식 창출의 동반 상승효과를 강조하는 연구 결과가 다수 도출되었다(김은영, 2011; 이도명&임성준, 2012; Serrano-Bedia et al., 2012; Hadjimanolis, 2000; Lin et al., 2012; Becker and Dietz, 2004).

본 연구에서의 혁신활동의 개념은 창업자의 성향이 고객 측면의 시장지향성이나 제품을 중요시하는 측면인 기술지향성을 골고루 아우를 수 있는 활동을 의미하며 실증분석을 통해 혁신활동이 경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 Ⅲ. 연구모형과 가설

본 연구는 이론적 배경을 기반으로 기존 연구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변수를 도출하여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개발하였다.



<그림 1> 연구 모형

- H1: 창업자의 창업성향은 창업성과에 영향력을 줄 것이다.
- H2: 창업자의 창업성향과 창업성과간의 관계는 창업자의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 H3: 창업자의 창업성향과 창업성과간의 관계는 산업경쟁요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 H4: 창업자의 창업성향과 창업성과간

의 관계는 제품수명주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 H5: 창업자의 창업성향과 창업성과간의 관계는 혁신활동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 H6: 창업자의 창업성향과 창업성과간의 관계는 창업자의 혁신활동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 IV. 연구방법 및 분석

### 1. 자료 수집 및 분석

연구모형과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표본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창업자 및 창업기업의 근무자를 중점 대상으로 창업자의 업종, 환경을 고려하여 직접설문을 통한 202부를 수집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 2. 연구분석 결과

독립변수에 대한 탐색적인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각 변인의 신뢰도가 Cronbach's alpha=.880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종속변인에 대한 탐색적인 요인분석 결과 또한 각 변인의 신뢰도가 Cronbach's alpha=.852이상으로 높은 신뢰도를 나타내었다.

#### 1) 창업자의 창업성향과 창업성과간의 관계

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한 분석결과, 재무적 성과에 대해서는 시장지향성보다는 기술지향성을 추구하는 창업자의 창업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개발활동( $\beta=.327, p<.01$ )과 연구개발환경( $\beta=.245, p<.01$ )이 높아질수록 재무적 성과

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비재무적 성과는 시장지향성 중 경쟁지향성이 높을수록( $\beta=.240, p<.01$ ) 비재무적 성과가 높았으며, 기술지향성 중에서는 연구개발활동이 강조될수록( $\beta=.295, p<.01$ ) 더욱 비재무적 성과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1의 “창업자의 창업성향은 창업성과에 영향력을 줄 것이다”에 대해서는 부분 채택되었다(표 1).

### 2) 창업자의 창업성향과 창업성과간의 관계에 대한 창업자의 업종의 조절효과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한 분석 결과, 재무성과에 대해서는 조절변인인 창업업종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조절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eta=-.127, p<.05$ )로 제조업보다는 지식서비스업종이 더욱 재무성과가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창업자 업종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재무적 성과에 대해서는 제조업은 기술지향성의 두 요인이 모두 주요한 영향요인이 되며, 지식서비스업의 경우는 연구개발 활동만이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가설 2에 대한 재무성과에 대한 가설은 부분 채택되었다(표 2).

비재무성과에 대해서는 조절변인인 창업업종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조절효과를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2에 대한 비재무성과에 대한 가설은 기각되었다.

### 3) 창업자의 창업성향과 창업성과간의 관계에 대한 산업경쟁요인의 조절효과

가설 3을 검증하기 위한 분석 결과, 재무성과에 대해서는 조절변인인 산업경

쟁요인은 전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비재무성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3은 기각되었다(표 3).

### 4) 창업자의 창업성향과 창업성과간의 관계에 대한 제품수명주기의 조절효과

가설 4를 검증하기 위한 분석 결과, 재무성과에 대해서는 조절변인인 제품수명주기는 성장기( $\beta=.241, p<.001$ )와 쇠퇴기( $\beta=-.422, p<.001$ )인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조절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장기일수록 재무성과는 높아지며, 쇠퇴기일수록 재무성과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수명주기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재무적 성과는 성장기는 창업자의 창업유형은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며, 도입기의 경우는 기술지향성 중 연구개발활동에 주력하여야 하며( $\beta=.514, p<.01$ ), 성숙기( $\beta=.378, p<.05$ )와 쇠퇴기( $\beta=.452, p<.05$ )에도 재무성과는 연구개발활동의 중요성이 높아질수록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4).

비재무적 성과는 도입기( $\beta=.365, p<.05$ ), 성장기( $\beta=.359, p<.05$ )는 연구개발활동의 중요성이 높아질수록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숙기( $\beta=.479, p<.01$ )와 쇠퇴기( $\beta=.801, p<.05$ )에는 경쟁지향성이 높아질수록 비재무성과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따라서 가설 4는 부분 채택되었다.

### 5) 창업자의 창업성향과 창업성과간의 관계에 대한 협업활동의 조절효과

가설 5를 검증하기 위한 분석 결과, 재무성과에 대해서는 조절변인인 협업활동은 전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비재무성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5는 기각되었다.

### 6) 창업자의 창업성향과 창업성과간의 관계에 대한 창업자의 혁신활동유

### 형의 조절효과

가설 6을 검증하기 위한 분석 결과, 재무성과에 대해서는 조절변인인 혁신활동유형은 전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비재무성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6은 기각되었다.

<표 1> 창업성향과 창업성과간의 다중회귀분석결과

		재무성과(모형A)			비재무성과(모형B)		
		$\beta$	t	p	$\beta$	t	p
시장	고객지향	.045	.533	.595	.128	1.526	.129
	경쟁지향	-.087	-1.059	.291	.240	2.945**	.004
기술	연구개발활동	.327	3.445**	.001	.295	3.118**	.002
	연구개발환경	.245	2.885**	.004	-.081	-.960	.338

<표 2> 창업성향과 창업성과(재무성과)간의 관계에 대한 창업자 업종의 세부조절효과

		제조업			지식서비스		
		$\beta$	t	p	$\beta$	t	p
시장지향성	고객지향	.004	.041	.967	.044	.298	.767
	경쟁지향	-.038	-.398	.691	-.035	-.243	.809
기술지향성	연구개발활동	.274	2.408*	.017	.489	3.008**	.004
	연구개발환경	.290	2.779**	.006	.133	.912	.365

<표 3> 창업성향과 창업성과간의 관계에 대한 산업경쟁요인의 조절효과

		재무적 성과			비재무적 성과		
		$\beta$	t	p	$\beta$	t	p
시장	고객지향	-.004	-.052	.959	.174	2.004*	.046
	경쟁지향	.036	.376	.708	.163	1.723	.086
기술	연구개발활동	.368	3.733***	.000	.295	2.996**	.003
	연구개발환경	.192	2.189*	.030	-.065	-.745	.457
조절변인 (산업경쟁 요인)	기존기업간의 경쟁관계	-.043	-.510	.610	-.042	-.500	.618
	신규진입자의 위협	-.136	-1.353	.178	.167	1.653	.100
	구매자의 교섭력	-.042	-.532	.596	.014	.181	.856
	공급업자 교섭력	.012	.159	.874	-.109	-1.481	.140
	대체제의 위협	-.026	-.410	.682	.064	1.020	.309

<표 4> 창업성향과 창업성과(재무성과)간의 관계에 대한 제품수명주기의 조절효과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beta$	t	$\beta$	t	$\beta$	t	$\beta$	t
시장 지향성	고객지향	-.145	-.948	.003	.016	-.189	-1.076	.126	.473
	경쟁지향	-.121	-.872	-.024	-.129	.029	.164	.300	1.231
기술 지향성	연구개발활동	.514	2.815**	.064	.342	.378	2.183*	.452	2.317*
	연구개발환경	.065	.430	.224	1.302	.283	1.692	.133	.843

<표 5> 창업성향과 창업성과(비재무성과)간의 관계에 대한 제품수명주기의 조절효과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beta$	t	$\beta$	t	$\beta$	t	$\beta$	t
시장 지향성	고객지향	.028	.188	.290	1.796	-.032	-.186	-.293	-.721
	경쟁지향	.245	1.789	.068	.398	.479	2.743**	.801	2.152*
기술 지향성	연구개발활동	.365	2.024*	.359	2.131*	.165	.952	.268	.900
	연구개발환경	-.154	-1.029	-.225	-1.447	.072	.429	-.083	-.344

## V. 결론

본 연구는 창업자의 성향을 시장지향성과 기술지향성으로 구분하고 그러한 성향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성향과 창업 성과 간의 관계에서는 재무적 성과에 대해서 시장지향성 보다 기술지향성을 추구하는 창업자의 창업 성과가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연구개발활동과 연구개발환경이 향상될수록 재무적 성과가 높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비재무적 성과는 시장지향성 중 경쟁지향성이 높을수록 비재무적 성과가 높았

으며, 기술지향성 중에서는 연구개발 활동이 강조될수록 비재무적 성과가 더욱 높아져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창업성향과 창업성과간의 관계에 대한 창업자의 업종 조절효과에서 재무성과에 대해서는 창업 업종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조절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제조업 보다는 지식서비스 업종이 더욱 재무성과가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창업자 업종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재무성과에 대해서는 제조업은 기술지향성의 두 요인(연구개발활동, 연구개발환경)이 모두 주요한 영향요인이 되며, 지식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연구개발 활동만이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셋째, 창업성향과 창업성과간의 관계에 대한 제품수명주기 조절효과에서는 재무성과에서 조절변인인 제품수명주기의 성장기와 쇠퇴기인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조절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장기일수록 재무성과는 높아지며, 쇠퇴기일수록 재무성과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수명주기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재무적 성과는 성장기에서 창업자의 창업유형은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며, 도입기의 경우에 기술지향성 중 연구개발 활동에 주력하여야하며, 성숙기와 쇠퇴기에도 재무성과는 연구개발 활동의 중요성이 높아질수록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각된 가설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성향과 창업성과간의 관계에 대한 산업경쟁요인의 조절효과에 대해 분석한 결과, 재무성과에 대해서는 전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재무적 성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둘째, 창업성향과 창업성과간의 관계에 대한 협업활동의 조절효과는 재무성과와 비재무성과 모두에 대해서 전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창업성향과 창업성과간의 관계에 대한 창업자의 혁신활동유형의 조절효과

에 대해서도 재무, 비재무성과에서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창업자의 연구개발 활동이 중요하며 제품수명주기에 의한 성숙기, 쇠퇴기에도 연구개발활동의 중요성이 높아질수록 재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이 연구개발활동 및 연구개발환경이 경영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불확실한 환경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해나가려면 창업자 및 창업기업은 끊임없이 연구·개발하여 경제 흐름에 맞추어 가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 참 고 문 헌1)

강도규, 박성용, “기술지향성의 의미와 기술지향성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상품학회, 상품학연구, 제25권, 제4호, 2007.

김은영, “한국 제조업의 기술혁신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기술체제를 중심으로”, 산업경제연구, 제 24권, 제3호, 2011, pp.1451-1478.

박재환, 김재호, 윤인철, “기업가지향성 및 시장지향성이 혁신성과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상

---

1) 참고문헌은 본문이 끝난 뒤 기재한다. 기재순서는 국문문헌, 외국어문헌의 순서로 하며 모두 저자명에 의거하여 정렬한다. 참고문헌이 정기간행물인 경우 저자 명, “논문 제목”, 잡지 명(이탤릭체), 권호, 면, 발행 년도, 페이지 순서로 기입한다.

- 업교육학회, 상업교육연구, 제25권, 제2호, 2011, pp.243-265.
- 조남재, 오진욱, 정진관, “하이테크기업의 기술혁신지향성과 시장지향성과 성과에 관한 탐색적 연구”, 디지털정책연구, 제5권, 제1호, 2007, pp.35-35.
- Baker, W. E., Sinkula, J. M., “The Synergistic Effect of Market Orientation and Learning Orientation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Vol. 27, No.4, 1999, pp.411-427
- Cohen, W. M., D. A. Levinthal., “Absorptive capacity: A new perspective on learning and innovation,”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Vol.35. No.1, 1990, pp.128-152.
- Freel, M. S., “Do small innovation firms outperform non-innovator?,” *Small Business Economics* 14, 2000, pp.195-210.
- Jaworski, B. J., A. K. Kohli., Marketing Orientation: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Journal of Marketing*, Vol.57, No.3, 1993, pp.53-70.
- Narver, J. C., S. F. Slater., “Does Competitive Environment Moderate the Market Orientation-Performance Relationship?,” *Journal of Marketing*, Vol.58, No1, 1994, pp.46-55.